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실명... 40세 전후 안과 검진 받아보자



건강 바로 알기
녹내장

박상우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

녹내장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다. 안압을 한번이라도 측정했거나 눈 사진을 한번이라도 찍어서 시신경검사를 했다면 이 정도로 눈이 망가지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환자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미 망가진 시신경은 회복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시력이라도 지키고자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 필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시력이 감소한 경우에 안과를 찾는다. 그러나 녹내장은 말기로 진행해야 시력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이미 녹내장이 발생한 환자도 병원에 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녹내장은 당뇨합병증에 의한 시력감소를 초래하는 당뇨망막증,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녹내장 환자가 2012년 기준 약 58만 명에 이르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년층은 물론 30~40대에서도 발견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30대 환자는 약 7만명, 40대는 약 13만명으로 아직 젊은 나이에도 녹내장은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질환·치매가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죽는 질환이라면 녹내장은 시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죽는 질환이다. 녹내장의 발생에는 안압(眼壓)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안압이 10~21 사이를 보일 때 정상이다. 따라

이미 망가진 시신경 회복 안 돼... 조기 발견이 최선
녹내장 환자 매년 10%씩 증가... 30~40대 환자도 늘어
내일 전남대병원에서 일반인 대상 녹내장 강좌 열어

서 안압이 21이상으로 높아지면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발생하고, 녹내장이 시작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나라 녹내장의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는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이 가장 흔하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많은데, 안압은 정상범위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시신경이 약해 더 쉽게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근시(近視)이다. 근시가 진행할 때 안구가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시신경이 약해진다. 따라서 근시의 경우 안압이 정상범위라 하더라도 시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크다.

초기에 녹내장은 시야결손을 유발한다. 시야결손은 주변부에서 발생해 서서히 중심부로 들어온다. 시야결손의 진행은 안과에서 시행하는 시야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녹내장은 시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또한 적응을 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녹내장이 말기로 진행하기 전에는 느껴지는 증상이 거의 없고, 가끔 흐려보이는 경우 노인이나 백내장으로 생각해 병원 진료를 미루게 된다. 녹내장에 의한 시야결손이 중심부로 깊게 진행되는 경우 터널 속에서 바깥을 보듯 주변 시야는 어둡고 중심부만 보이기 때문에 길을 걷다 자주 부딪히고 운전할 때 옆으로 지나가는

■ 녹내장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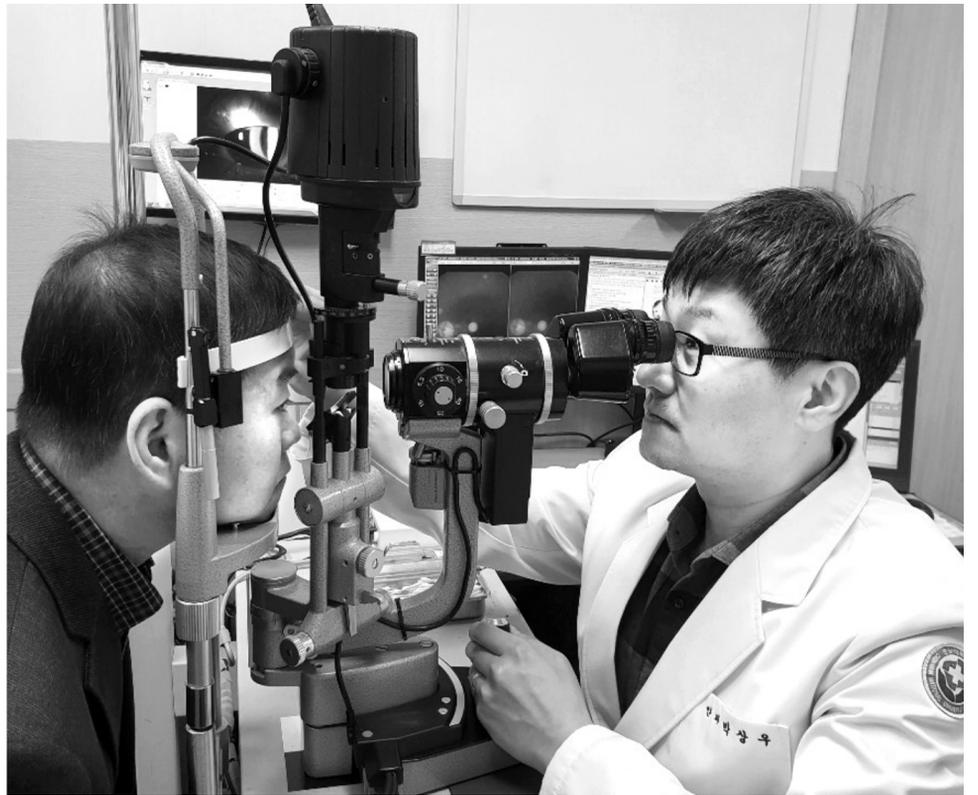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량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시력이 감소해 안과를 찾는 경우 시신경은 이미 심하게 망가져 있고 실명직전일 수 있다.

녹내장 치료의 기본은 안압하강이다. 안압이 높은 경우는 물론이고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도 안압하강이 가장 중요하다. 안압하강은 안압을 낮추는 안약으로 시작한다. 내성(耐性)이 생겨 안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시술을 하고, 그래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로 낮춰야 한다. 일단 안압을 낮추고 지속적인 관찰을 해 더 이상 녹내장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안압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다.

◇조기발견이 최선의 방법·앞서 말한 것처럼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될 수 없다. 시신경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녹내장



전남대병원 박상우 안과 교수가 시야가 흐려 보이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을 조기에 진단하고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녹내장은 한번 진단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간혹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

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만 40세를 생애전환기로 지정했다. 최근 젊은 나이에도 녹내장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0세 전후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안과 검진을 미뤘다면 안과에서 안압

측정과 시신경검사를 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남대병원 안과는 12일 오후 4시30분 병원 의학박물관 4층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녹내장 건강강좌를 갖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지역의료계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 파수의 역할 충실히 이행하자”

광주·전남병원회 정기총회

광주·전남병원회(회장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가 최근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주·전남병원회는 지역 의료기관들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결성된 대한병원협회 산하단체로서, 300여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정기총회는 임원진 대한병원협회장과 이삼용 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병원회 임원과 회원 그리고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주·전남병원회는 올해 병원회의 사업 정상화, 회원병원의 의료정책 교육, 병원협회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백영하 서기관의 '보건 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도 있었다.



이날 이삼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내 의료환경은 여느 해보다 어렵고, 특히 지역의 여건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지역의료계가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건강 파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말기암 환자 서비스 '최우수' 복지부,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사업 평가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신)이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돌봄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선 19개 병상을 운영중이다. 2008년 입원형(호스피스 병동 입원)에 이어, 지난해부터 자문형(일반병동·외래진료 이용)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들의 말기암 환자 진료사업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따라 국고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칭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칭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키르기스스탄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대사 광주 청연한방병원 방문 한방 시술 받았다

키르기스스탄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대사(48) 주한 대사관 방문에 대한 한방 시술을 받고 떠나 눈길을 끌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디나라 케멜로바(48) 주한 대사관 방문에 대한 한방 시술을 받고 떠났다고 밝혔다.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는 밀크필, 재생관리, 콜리프팅 등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며 동반한 아타이 나마트바에브(38) 보좌관은 허리디스크와 어깨통증으로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날 1시간 가량 시술 및 치료를 받은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와 아타이 나마트바에브 보좌관은 한의학 치료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떠났다는 후문이다.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는 “키르기스스탄에도 청연한방병원 같은 한양방 협진의료시설 생겼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중에 청연한방병원 원장님을 대사관에 초청하고 싶고 앞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협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권 국가에 현지 의료사 및 한의학 홍보대사 운영 등을 진행해 더욱 관심이 높다. 실제 청연한방병원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현지에 알마티청연이라는 한의원을 개원해 현재 운영 중이며, 향후 키르기스스탄에도 진출을 추진중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8타경 3060	1	목포시 영산로121번길30, 2층 202호 [남교] 아파트	아파트	36,000,000	대지권미등기 및 유무부불형, 감정평가액은 건물만인 평가
2018타경 3619	1	목포시 죽산로40번길24, 103동 10층 1001호 [산정동, 현대아파트] 71, 175㎡	아파트	95,000,000	
2017타경 4578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61-2 3924㎡	답	255,0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58-284㎡ [현황전임부도로, 정확한 한계는측량요, 수목 [무화과나무] 포함]	답	18,8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185-5 1104㎡ [현황과수원, 수목 [무화과나무] 포함, 지적경계부근에분묘소재]	전	88,8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202 486㎡ [현황내대지및일부전임지, 대]	대	47,142,000	
	5	동소 208 334㎡ [연교자미상분묘1기소재, 현]	전	20,7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1378	1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99 1230㎡ [매각포]	전	11,716,000	현황목전, 연교소재
2018타경 7413 [중복]	2	동소 694-41 11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8,131,500	이상분묘수기소재
	3	동소 694-42 11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8,131,500	지외일단지로서사용
2018타경 3008	1	신안군 안해읍 신장리 산154 9627㎡ [산지 전용허가, 건축허가, 직공소를통한]	임야	2,085,102,000	일괄매각, 목책1-3
	2	동소 산154-7 9290㎡ [매각포및제시외건물, 위험물저장고, 컨테이너박스존재]	임야	2,085,102,000	현황유사장종지, 목책2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특
	3	동소 산154-10 840㎡	임야		한상대, 수목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8타경 3008	3	신안군 안해읍 장갈리 161 3669㎡	답	135,75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462-1 99㎡ [현황목전]	전	78,641,000	일괄매각, 농지취득
	5	동소 462-2 1055㎡	전	78,641,000	농지취득증명요, 목책11-14공부상전, 현황임야 [자전임] 상태
	6	동소 462-4 1431㎡	전		
	7	동소 462-7 268㎡	전		
	8	동소 462-9 109㎡	전		
2018타경 3527	1	신안군 안해읍 분내리 145-6 5641㎡ [매각포]	전	285,0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62-9 109㎡	전	285,050,000	
2018타경 54068	1	신안군 안해읍 송광리 348 927㎡ [현황목전]	답	39,11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
	2	이머일부중로1위지족	답	39,114,000	특지각증명요
	3	동소 348-1 15㎡ [현황구거머, 영지]	구거		
2018타경 54068	1	사용본거지: 목포시 청호로113번길 4 [산정]	자동차	17,000,000	보관장소: 무안군
	2	동] 등록번호: 33우9079 차량: 반디패 [SANTA FE] 연식: 2014	자동차	17,000,000	말로올지장리535번지
2018타경 3008	2	신안군 안해읍 장갈리 산123-1 24157㎡	염전	437,099,900	일괄매각, 목책5-8
	3	동소 산123-3 2678㎡	염전	437,099,900	일괄매각, 목책5-8
	4	동소 산123-4 3273㎡	염전		공유수면예포락, 목책4,5일부유지
	5	동소 산123-2 1884㎡	염전		임야
	6	동소 산123-18 6081㎡ [매각대상아닌컨테이너박스, 제시외건물있음]	유지		

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기일과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본다.

- 매각기일: 2019. 3. 28. [월] 10:00
- 매각장소: 2019. 4. 1. [월] 16:00
- 매각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회 경매대상
-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의한 기일입찰방식에 의한 입찰, 입찰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담보, 기일과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서류에 붙여 입찰한다. ②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제외한 입찰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④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⑤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⑥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⑦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⑧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⑨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⑩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이 무효로 본다.

2019.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김신호